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 및 대외정책, 어떻게 되나?*

Guy Sorman

내가 한국에 올 때 마다 세계경제연구원 조찬강연에 초청을 받는 것이 의례적인 일이 되었다. 과거 몇 년간 여러 번 이 자리에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를 했다. 중국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고, 미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다. 당시에 나는 너무나 낙관적이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실수를 했다. 우리 모두 실수를 한다. 특히 경제전문가들이 많은 실수를 한다. 경제전문가들은 미래를 예측하는데 참으로 무능하다. 우리는 미래를 어떻게 예측해야 할지 모른다.

그러나 내가 몇 년 전 미국경제에 대해 한 말을 잘 기억한다면 - 나는 이 견해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 기본적으로 미국경제는 이번 위기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주도하는 엔진이었으며, 지금도 그러하다.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이래 주도권을 행사해왔다. 위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주도권을 변화시킬만한 말한다면 미국은 좋은 대학과 실험실의 연구, 그리고 훌륭한 산학협력에 힘입어 20세기 어떤 도전도 발견할 수 없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인정하고 있다.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그것은 미국이 불황에서 헤어나는 바로 그날 전세계도 불황에서 헤어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기 때문이다. 미국이 먼저 현 상황을 타개하지 못하면 현 상황을 극복할 희망은 없다. 이것은 미국이 여전히 주도권을 갖고 있다는 증거의 한 사례이다.

이번 위기의 또 다른 패러독스(paradox)는 미국 달러화의 힘이다. 위기를 맞았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원하는가? 그들은 모두 미국 달러화를 산다. 미국 달러는 과거 어느 때 보다 강하며, 전세계가 미국 재무부 단기증권을 산다. 이것은 우리가 보듯이 오바마 대통령의 선택에 우월성을 부여한다. 미국이 자국 화폐를 찍어내고, 다른 나라에서 무제한으로 빌려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한국이나 프랑스가 누리지 못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영향력은 긍정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일 수도 있다. 오늘 강연을 위해 나는 영어로 텍스트를 썼다. 가능하다면 이 텍스트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배포하고자 한다. 내용이 길고 자세하여 오늘 아침 그 전체를 전부 다룰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이 텍스트에 바탕을 두고 몇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보다 관심이 있는 분

* 이 글은 2009년 3월 19일 개최된 'IGE/삼성전자 Global Business Forum'의 내용을 녹취하여 번역*정리한 것임.

들은 내가 작성한 텍스트 전문을 주최측으로부터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 강연 벽두에 외교문제와 북한의 위협상황에 대하여 이야기가 나왔는데, 나도 경제문제를 다루기 앞서 미국의 외교정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미국 새 행정부의 선택은 연속성이라는데 있음이 매우 분명하다. 나는 그렇게 믿고 있지만 일부 미국의 좌익 논객들은 내 의견에 동조하지 않을지 모른다. 국방장관도 같은 사람이고, 최고위직 장성들도 같다. 취임 첫날부터 오바마 대통령은 이라크에서 전쟁을 지휘했고 지금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책임지고 있는 페트라루스(Petraeus) 장군을 비롯한 고위 군장성들의 조언에 의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오바마 정부가 세계질서에서의 미국의 역할에 대하여 어떤 논쟁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뜻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처럼 미국을 하나의 나라로 보고 미군은 세계의 평화유지자 역할을 계속해야 하며, 세계평화를 유지하는 데는 미군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다소의 망설임도 있다. 민주당원 중에는 평화주의자도 있고, 미군의 역할에 회의를 갖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왜 태평양에 거대한 7함대를 유지해야 하는지, 왜 아프가니스탄에 병력을 증원해야 하는지 묻는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은 미미한 것이다. 7함대는 태평양에 충분히 오래 동안 있을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을 비롯한 세계의 위험지역의 미군은 증강될 것이다. 클린턴 장관의 주장과 선언을 볼 때 미국의 대북정책에 중요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도 분명하다. 마찬가지로 이란과 관련해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의 정책은 계속될 것이며, 단호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성공적일지는 확신할 수 없다. 지난 여러 해 동안 성공적이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소한 북한에 대하여 유화적인 움직임은 없을 것이다. 나는 북한 문제에 대하여 더 이상 논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한국의 언론에 나의 입장을 자주 표명했었다. 열쇠는 평양에 있지 않고 중국에 있다. 중국과 교섭을 할 방안을 찾지 못하는 한 북한을 다룰 방안은 찾지 못할 것이다. 이쯤이면 족하다. 이 문제는 오늘 아침 우리의 논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미국의 적들이 미 제국주의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하는 연속성을 주장하고자 할 뿐이다. 오바마는 미 제국주의자다. “제국주의자”란 말을 처음 쓴 미국의 대통령은 1800대의 제퍼슨(Jefferson)이었다. 제퍼슨은 미국이 자유의 제국이라고 말했다. 건국 초기부터 미국은 스스로를 제국주의적인 소명을 지닌 국가라고 보았다. 미국인은 그들의 역할을 긍정적인 제국주의로 보고 있다. 그들은 군의 역할을 극단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미국 해군에 대하여 한마디 한다면, 최근 하와이의 7함대 사령부를 방문했었다.

7함대의 한 고위 제독은 7함대의 자라는 2차 대전 이후 전쟁에서 싸워 본적이 없다는 것이며, 그것이 7함대의 중요성을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평양은 평온하다. 미 해군이 있기 때문에 통상이 계속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세계의 이 지역에서 미군의 역할을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것을 나는 말하고자 한다. 내 생각에 이것은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하며,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다.

이제 경제문제로 돌아가자. 사회자가 소개말에서 말했고 모든 사람이 동의하듯이 지금은 1930년 이래 가장 심각한 불황이다. 심각하긴 하지만 두 사태는 비교대상이 아니다. 사회자가 말했듯이 금년과 내년에 마이너스(-) 성장을 감수해야 할지 모르고, 비록 2~4%의 마이너스 성장이 유쾌한 일은 아닐지라도 이것을 생산이 40%나 줄었던 1930년대의 미국 및 유럽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실업률을 본다면 유럽은 늘 10%대를 감수해 왔고, 이제 그것이 12%로 올라갈지 모른다.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니다. 미국의 실업률은 금년 말까지 8%대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미국 인구의 절반이 일자리가 없었던 1930년대와는 비교할 수 없다. 우리는 똑 같은 상황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불황이고 위기이긴 하지만 세상의 끝은 아니며, 자본주의의 종말도 아니다. 자본주의의 위기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내의 위기이다. 부의 일부가 파괴되고 일자리가 사라졌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봉착했다. 그러나 과거와 비교해서 세계 여러 나라는 국민들이 완전빈곤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나름대로의 복지제도를 갖추고 있다. 일본과 한국에서도 이번 위기로 가장 타격을 받는 최빈곤층에 대한 직접 지원을 시작했다. 체제를 살리기 위해서 최빈곤층을 돕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자유시장과 자본주의 체제 유지를 선호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는 이를 자주 반복하여 말했다. 공화당이 그를 사회주의자라고 비난해 왔기 때문이다. 프랑스에서 사회주의자라고 불리는 것은 칭찬이다. 그러나 미국에서 사회주의자라고 불리는 것은 매우 부정적인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 자신이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편이며, 분명히 사회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을 되풀이 말함으로써 몸조심을 해왔다. 국가의 개입과 규제를 포함하여 그가 하는 모든 일은 체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며, 자본주의를 되살리려는 것이다. 일부 회의론자는 그의 실체가 사회주의자라고 믿는다. 나는 개인적으로 그가 경제에 대하여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분명하다. 그는 기본적으로 현 체제가 좋다고 생각한다. 현 체제는 미국적이며, 미국문화에 적응한 체제다. 그는 체제를 바꿀 계획이 없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오바마 대통령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우선 경기 부양 문제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부양책은 어떤 면에서는 이데올로기적인 혁명이다. 레이건(Reagan) 대통령 재임이래 시장은 자동적으로 적응을 하고 국가의 개입은 극단적으로 제한적이어야 한다고 믿어 왔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시장의 자동적인 적응성에 대한 믿음은 상당 부분 사라진 것 같다. 거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 고전적인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금융정책은 무용지물이 되었다. 이자율을 0%로 낮추어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경제정책의 고전적인 도구는 효능을 상실했다. 그러므로 국가에게 남겨진 것은 부양책에 의한 직접 개입이며, 산업체와 금융기관의 자본 재구성에 의한 직접 개입뿐이었다.

경기부양에는 여러 문제가 뒤따른다. 첫째, 경제를 되돌아 볼 때, 경기부양책은 효능이 없었다. 경기부양책으로 한 나라가 구제되었다는 단 하나의 사례도 찾아볼 수가 없다. 1970년대 여러 나라가 채택했고 1990년대 일본이 실시한 여러 부양책에 따라 경제에 계속 돈을 퍼부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때로는 경제가 회복되기도 했고, 때로는 그렇지 못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경기회복은 부양책과는 관련이 없었다. 부양책이 사람들에게 도달하기 전에 경제가 회복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제성장 및 경제회복과 경기부양책 사이의 관련은 입증된 바가 없다. 그렇다고 이번에도 효능이 없을 것이라는 뜻은 아니다. 오바마를 지지하는 한 경제학자가 내놓은 주장에 의하면 과거의 경기부양책은 규모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다고 한다. 대규모 부양책을 쓴다면 부양책의 규모 때문에 경제가 되살아난다는 것이다. 나는 이 주장에 대해 확신이 없다. 모두가 그럴 것이다. 사회자가 말했듯이 경기부양책이 시작되자마자 사람들은 소비가 아니라 저축을 늘릴 것이다. 그러므로 부양책은 저축을 늘리고 위기를 더욱 악화시킨다. 저축을 하면 그만큼 소비가 줄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산은 줄어들고 일본과 한국 같은 나라들은 타격을 받는다. 부양책은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부양책은 중립적이다. 여기저기 일자리를 만들지 모르나 이러한 일자리는 어쨌든 생기게 되어 있는 것들이다. 그것을 입증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경기부양책은 정치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것은 정부가 행동을 하고, 책임을 지고, 무언가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고전적인 경제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종류의 위기에 대한 최선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민주주의 나라에서 텔레비전 쇼에 나가서 국민들에게 위기를 벗어나는 최상책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정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면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인들은 행동을 해야 한다. 경기부양책은 중립적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1990년대의 일본처럼 너무 장기간 부양책을 쓰면 공공지출이 민간투자를 대체하

게 된다. 부양책은 2년간이 좋으며, 2년이 한계라는 것이 일본 경제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그 이상 길어지면 일할 이유가 없고 투자할 이유가 없는 새로운 경제체제가 생기게 된다. 정부가 일자리와 이윤을 만들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그러므로 부양책을 너무 장기간 실시하면 성장의 동력이 파괴될 수 있다. 이것은 일본 정부가 유럽 국가와 미국에 전한 충고이다. G-20회의에서 일본은 주로 이러한 주장을 할 것이다. 일본이 겪은 “잃어버린 10년”을 피하고 싶으면 부양책 시행기간을 줄이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부양책의 둘째 위험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인플레이션이다. 현재까지 미국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만이 보호를 받고 있을 뿐이다. 미국은 그들의 돈을 쓸 수 있으며, 전세계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고, 올해의 10% 적자처럼 거대한 적자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에게는 어렵도 없는 일이다. 미국은 어떻게 부채를 갚을까? 미국은 인플레이션으로 부채를 갚을 가능성이 크다. 경제를 파괴하고 사회를 파멸시키는데 인플레이션보다 더 나쁜 것은 없다고 우리는 알고 있다. 미국은 그들에게 좋은 방법을 쓰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미국에게만 가능한 것이다. 다른 나라는 이러한 방법을 모방할 수 없다.

오바마 행정부가 사용한 둘째 도구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생산업체와 금융업체에 대한 직접 개입이다. 이것 역시 극히 회의적이다. 자동차 산업을 구제하려는 것은 잠정적인 부양책이 있는 후 자동차 산업이 회복되고 시장에 적응을 할 수 있다는 전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종류의 개입은 여러 해 계속될 위험이 있고, 이런 종류의 산업에 대한 구제금융은 훌륭한 경영과 채신을 몰아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세계적인 경기부양책과 산업에 대한 구제금융 사이에는 평행선을 그을 수 있다. 그것은 동일한 논쟁이다.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 성장에 불을 지피고 사람들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점차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져 경제적 역동성과 투자와 채신을 구축해 버리는 사회주의 체제와 같은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들어 내게 된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구제금융은 채신과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자동차 산업체들은 단지 시간만을 벌고 있을 뿐이다. 은행체제와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는 위기의 진정한 근원에 초점을 맞추지 못했다. 위기의 진정한 근원은 파생상품의 규모가 어떠한 통제도 받지 않도록 방치한 데 있다. 파생상품은 그 자체는 좋은 것이며, 훌륭한 금융혁신이다. 파생상품 덕분에 보다 위험한 나라에 보다 위험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파생상품이 없었다면 중국과 인도는 성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투자를 유치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도를 넘었다. 얼마나 넘었나? 아무도 모른다. 이것이 진정한 문제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회복은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다. 미국 정부는 이 문제를 어

떻게 해결할지 분명히 알고 있지 못하다. 그것이 그다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에 나와 있는 부실자산의 총액을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무도 그 총액을 모르고, 아무도 그 자산의 가치를 모른다. 미국정부는 어떤 면에서 구제할 가치가 있는 은행과 구제할 가치가 없는 은행을 구분하는 시스템을 고안할 시간을 벌고 있는 것이다. 이 자산을 평가하는 과정은 극히 위험하다. 이 자산이 시장에 나오기 전에는 아무도 그것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장만이 말할 수 있다. 물론 시장에 내보내는 것은 극히 위험하다. 많은 은행과 금융기관이 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쨌다는 것인가? 낡은 산업, 부패한 은행, 리스크를 관리할 능력이 없었던 금융기관은 사라져야 할지 모른다. 납세자의 돈으로 그들을 살려야 할 이유, 경제적 이유, 윤리적 이유는 없다. 지난 몇 개월 동안 AIG에 대하여 이루어진 일에서는 아무런 뚜렷한 윤리적 경제적 이유도 찾을 수 없다.

정부는 시스템 리스크를 이야기 한다. 어떤 위험인가? 나는 가이트너(Geithner) 미국 재무부 장관이 하루가 멀다고 상충되는 말과 신호를 내놓은 것을 그만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가 결정을 내려 어느 한쪽 방안을 택하지 않는 한 위기는 계속될 것이며, 금융시스템 내의 신뢰는 다시 확립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미국의 많은 칼럼니스트가 이에 대해서 글을 써도 오바마 행정부의 반응은 “지금까지 겨우 두 달 밖에 안 되었는데” 라고 말하는 것이 고작이다. 그 말은 맞지만 이것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결정이다. 나머지는 미루어 둘 수 있다. 부양책도 미룰 수 있다. 산업에 대한 구제금융도 미룰 수 있다. 부실자산을 관리하는 방안은 미룰 수 없다. 오바마 행정부는 기업계에 유리하지 않은 다른 신호와 정책도 갖고 있다. 세금인상, 기업계의 윤리에 대한 공격, 보너스 제도에 대한 비판, 기업계의 부도덕성에 대한 비난 등이다. 기업계는 물론 이를 좋아하지 않는다. 미국의 장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중들 간의 담론이 나오고 있지만 우리는 모른다. 너무 일러서 아직은 알 수 없다. 반(反)자유시장, 반기업가, 반기업에 관한 담론들인데, 이것은 미국 역사상 전혀 새로운 현상이며, 그것이 민주당원에게서도 나오고 있다. 그것이 어떠한 사태를 가져올지 아무도 모른다.

자유무역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다면, 오바마 행정부는 아직까지 자유무역에 대한 공약을 하지 않고 있다. 매우 애매하다. 은행시스템에 대하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애매하다. 이 문제에 대하여 행정부와 민주당은 매우 분열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단일화된 정당이 아니다. 민주당은 경제에 관하여 극좌에서 극단적 보수에 이르는 매우 상이한 견해를 가진 개인들의 집합체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매우 반자유무역적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했던 오하이오와 펜실바니아 등 산업지역의 표를 얻기 위한 방안이었다고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 당선된 후 그는 태도를 조금 바꾸었다. 최근 캐나다를 방문

했을 때 그는 멕시코와 캐나다와 맺은 북미자유협정(NAFTA)을 수정할 의향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것은 그의 선거공약의 일부였다. 그는 그것이 과거의 일이라고 말했다. 자유무역에 대한 고전적 입장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콜롬비아, 미국과 한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현안으로 남아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매우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NAFTA가 좋은지 나쁜지는 자신도 모르지만, 한국 및 콜롬비아와의 자유무역협정은 미국 국민과 함께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논쟁에서 무슨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 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강력한 로비와 목소리들이 있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자유무역협정의 주요 수혜자인 소비자는 목소리가 없다. 소비자는 조직화 되어있지 않다. 미국은 1980년대 미국의 자동차 로비가 일본차를 반대했을 때와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것이다. 그러나 당시 미국인에게 일본차의 인기는 매우 높아서 디트로이트의 로비는 소비자들에게 압도되었다. 콜롬비아의 경우 미국 소비자들이 “우리는 콜롬비아의 꽃과 섬유를 원한다” 라고 할 것인가? 그들은 콜롬비아에서 무엇이 들어오는지 모른다. 한국상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아닐까 걱정된다. 그들은 한국 상품의 혜택을 받지만 그것이 한국 상품인지 모르며, 또 한국 상품이 한국의 것이라고 분명히 판별되는 것도 아니다.

나는 한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성사시키기 위한 로비를 할 것을 권하고 싶다. 또 다른 촛불시위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에서 로비를 해야 할 것이다. 한국민에게 유럽 및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가져올 혜택을 설명해야 한다. 또 미국에서도 로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모두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냥 기다리면서 여론이 정부를 지지해 주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 지지를 얻기 위해 행동을 해야 한다. 프랑스나 유럽의 경우,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행동은 없을 것이지만, 누가 알겠는가? 일부 산업 로비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으로 잃을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한국은 런던의 G-20 회의에서 발표되고 확인 될 한-유럽 자유무역협정에 극히 조심스럽게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협정은 한국과 서유럽이 자유무역을 지지하며, 현재의 위기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정치적 조치는 자유무역이라는 것을 전세계에 강력히 천명하는 것이다. 내 기억이 맞다면 4월 2일에 열릴 이 한-유럽 자유무역협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것은 미국에게 신호가 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한국 정부와 경제계가 미국과 한국의 여론조성을 위해 활발한 로비를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오바마 경제정책의 다른 국면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논하고자 한다. 나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지 아닌지 잘 모른다. 내 말은 그것이 미국경제와 세계경제를 변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담론과 말 잔치에 그칠 것인지 잘 모르겠다는 것이

다. 내가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녹색 일자리”와 “대체 에너지”다. 솔직히 말하면, 녹색일자리가 무엇인지 나는 모른다. 대체 에너지가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그것은 납세자가 대가를 지불하는 에너지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나는 대체 에너지가 무엇인지는 안다. 오바마 행정부가 대체 에너지와 녹색 일자리를 지지하는 정책을 얼마나 밀고 나갈지 우리는 모르고 있다. 나는 이것이 순전히 말 잔치이며, 매우 빨리 사라져 버릴 한 줄기 바람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면, 나는 앞에서 말한 위기의 패러독스에 관한 언급을 다시 거론하고자 한다. 나는 미국에 대하여 이야기를 시작했고, 미국 이야기로 끝을 낼 것이다. 미국 경제는 취약하다는 것을 지적했지만 미국을 대체할 지도자나 지도자 집단은 없다.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미국의 달러화는 통화로서 매우 애매모호하지만 유로를 포함하여 어떤 통화도 미국 달러화를 대체하는 안전한 통화가 될 처지에 있지 않다. 이 모든 것이 위기의 소산이다. 우리는 위기의 초기에 있다. 우리는 하루하루 배워 나가고 있다. 우리는 모든 교과서를 고쳐 써야 한다. 많은 것들이 달라졌다. 미국의 연방은행이 상업어음을 사들였는데 그것은 교과서에 없는 대목이다. 우리는 그것이 교과서에 실릴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러나 우리가 원칙을 바꿀 필요는 없다. 이번 위기의 위험성 중의 하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와 걱정 때문에 그들이 과거에 배운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인들은 “이것은 자본주의의 종말이다.”, “이것은 자유시장의 종말이다.”, “사회주의를 다시 손질하자.”는 등 이데올로기적인 논쟁에 빠져들고 있다. 사람들은 매우 빠르게 기본적인 지식을 잊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지식과 기본 원칙들을 잊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은 몇몇 기본 지식을 존중하고 몇몇 기본 원칙을 따랐기 때문에 부유한 나라가 되었다. 우리가 위기에 있다고 여러분이 이 지식과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여러분의 신조와 원칙을 더욱 강화하고, 결코 쓸모 없고 어리석은 이데올로기적인 논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나는 많은 경제전문가들이 분별력을 잃었기 때문에, 또 이러한 상황에 처하여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지식을 잊고 있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질의 · 응답

질문 오바마 대통령은 변화를 추구한다. 그는 소프트 파워가 하드 파워를 압도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 프랑스의 소프트 파워는 나치의 그것을 능가했지만 나치는 프랑스를 침공했다. 이것은 많은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오바마의 소프트 파워에 대한 입장이 그의 임기 중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둘째 질문은 경제문제다. 오바마 행정부는 최근 GDP의 2%에 해당하는 거액을 구제금융에 투입하였다. 한 일본의 금융인은 일본이 과거 10년 동안 GDP의 20%를 일본경제 살리기에 투입하였다고 나에게 말했다. 그러므로 미국의 구제계획은 너무 규모가 작은 것처럼 보인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끝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하여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나는 아시아의 금융 및 경제 통합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특강을 위해 2007년 멤피스 대학에 갔었고, 2008년에는 통아일랜드 대학에 갔었다. 청중이 많았던 것으로 보아 많은 미국인들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관심을 갖고 미국의 일자리시장에 대하여 우려를 하는 것 같았다.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미국-콜롬비아 자유무역협정이 미국 의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보는가? 한국 국회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 소프트 파워 문제를 제기해 주어서 고맙다.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과 군사정책은 기본적으로 조지 부시 대통령의 정책과 동일하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바마 행정부는 하드 파워보다는 소프트 파워에 더 치중하기 때문에 같은 정책이 아니라는 발상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것은 실질적인 변화가 없으면서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안이었다. 소프트 파워는 정부가 구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연속성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한 말장난 같은 것이다.

경기부양에 관하여 경제전문가들은 1930년대의 상황을 놓고 공개논쟁을 하고 있다. 폴 크루그만(Paul Krugman)은 1930년대의 경기부양책은 효과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규모가 너무 작아서 실효가 없었으며, 규모가 훨씬 더 커야 한다는 주장이다. 얼마나 커야 할까? 우리는 모른다. 너무 크면 인플레이션 위험이 따른다. 이 문제는 나중에 좀 더 상세히 이야기 하겠다. 위기의 초기에 매우 완화된 통화정책이 있었다. 느슨한 통화정책으로 돌아가면 위기를 해소하지도 못할 뿐 더러 위기의 원인을 되풀이 하게 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양국에서 비준이 되겠느냐? 나는 그렇다라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자유무역의 역사를 생각할 때 자유무역에 반대하는 높은 목소리는 언제나 있었다. 그러나 점차 상식이 승리를 하게 되고, 대부분의 자유무역협정은 당사국에서 비준을 받았다. 2차 세계대전 이래 모든 자유무역협정은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는 있어도 모두 비준되었다.

질문 좋은 말씀에 감사 드린다. 두 가지 질문을 하겠다. 하나는 경제에 관한 비판

적인 전망에 관한 것인데 이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 해주기 바란다. 둘째는 미국 달러화의 환율 문제에 관한 것이다. 이번 경기침체는 미국의 부채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는 글을 읽었다. 미국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총부채는 2008년 6월 기준으로 51조 달러이며, 과거 100년간 미국의 신용부채는 GDP의 150%였으나 대공황 기간 중에는 250%였다. 장기적인 유일한 해결책은 미국인들이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는 것뿐이라고 이 글의 필자는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둘째, 미국의 부채가 이처럼 많은데도 미국 달러화는 더 강해지고 있다. 미국은 달러화가 주요 무역결제통화이기 때문에 이로부터 큰 혜택을 받는 독특한 위치에 있다. 금융위기가 일단 지나가고, 사람들이 신용 리스크에 대한 공포를 일단 극복하면, 그리고 부양책 패키지가 집행되면 전 세계는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맞게 될 것이다. 이 압력은 다른 나라에서보다 미국에서 더 강할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이자율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환율을 자극할 것이다.

답변 둘째 질문에 먼저 답하겠다. 나도 질문자의 가정에 공감한다. 또 다른 패러독스는 경기침체가 극복되면 미국 달러화가 평가절하된다는 것이다. 안전한 통화에 투자할 이유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것은 가정일 뿐이다.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지는 정말 아무도 모른다. 그것을 정확히 예측할 어떤 수학적 모델도 없다.

첫째 질문에서 장기적인 해결책은 미국인들이 좀 더 저축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어느 정도까지만 그렇다. 왜냐하면 우리에게서 부채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부채의 적정수준이 문제다. 지금처럼 미국인들이 저축을 시작하면 그들은 구매를 안 한다. 미국인들이 저축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너무하면 안 된다. 무엇이 부채의 적정수준일까? 부채가 전혀 없다면 미국은 더 이상 세계경제의 엔진이 아니다. 부채가 너무 많으면 미국은 세계를 경기침체에 몰아 넣을 것이다. 미국이 충분한 부채를 지고 있지 않으면 역시 세계는 경기침체에 빠질 것이다. 적정수준의 부채는 산정하기가 어렵다. 이것은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금리정책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만일 우리가 지금의 위기에 대한 역사를 써야 한다면 나로서 보태고 싶은 말이 있다. 모든 것은 9/11이후에 매우 낮아진 금리에서 시작했다는 것이다. 물론 모든 경기침체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하여 생긴다. 나는 알렌 그린스펀(Alan Greenspan)을 매우 존경하지만 이번 경기침체의 주 원인은 그가 9/11 이후 과잉 조치를 한데서 온 것이라고 보고 있다. 9/11 이후 세계경제가 정지되지 않을까, 무역과 투자가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 9/11 직후 그린스펀과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내린 결정은 경제성장에 다시 불을 붙이기 위해 이자율을 내리는 것이었다. 당시에는 효과가 있었다. 아주 효과가 좋아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이자

율을 올릴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 당시 모두가 도취해 있었고, 미국이 높은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자율을 높이는 일을 하지 않았다. 전세계가 성장을 하였다. 누구나 매우 낮은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만든 이 느슨한 통화정책에 더하여 고유가 때문에 큰 돈을 모은 러시아와 아랍국가, 그리고 중국과 일본과 한국으로부터 거액의 외자가 미국으로 유입되었다. 미국의 금융시스템은 이자가 거의 0%에 가까운 돈의 홍수를 맞게 되었다. 투기는 이러한 느슨한 통화정책의 결과였다. 오늘날 정치적 논쟁의 핵심은 사람들이 너무 탐욕스러웠고, 너무 투기를 했으며 그 결과 거품이 붕괴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투기가 가능했고 왜 사람들이 탐욕스러워졌는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돈이 넘쳐나고 이자율에 대한 개념이 없었기 때문이다. 탐욕은 어느 사회에나 있지만 탐욕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미국에서처럼 돈이 넘쳐났을 때이다. 위기의 원천은 탐욕이 아니라 느슨한 통화정책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오로지 경제를 부양시켜야 한다는 목표로 다시 느슨한 통화정책을 쓴다면 그것은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다.

질문 프랑스 혁명의 경우, 왕실이 거액의 부채를 지고 있었고 그리하여 3부 회의가 소집되고 혁명이 일어났다. 매우 나쁜 유추이긴 하지만, 프롤레타리아 국가들이 미국에 반기를 들고 봉기하지 않았는가? 나는 미국의 헤게모니가 영원히 존속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최소한 달라져야 한다. 미국의 헤게모니의 향후 향방과 관련하여 오바마 대통령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답변 이 헤게모니는 누가 정한 것이 아니다. 역사의 결과이고 귀결일 뿐이다. 미국 내부에는 제국으로서의 미국의 역할에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늘 많이 있었다. 현재에도 여전히 학계나 정치계에는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왜 미국이 세계를 책임져야 할까? 어쩌다 그냥 그렇게 되어버린 것이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거의 우발적으로 제국이 되었기 때문이다. 로마제국은 제국을 건설하고자 했었다. 중국제국도 제국을 건설하고자 했었다. 미국은 제국이 되었다. 그것은 정말로 선택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미국 내부에 논쟁이 일어나고 미국인들이 더 이상 제국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두 가지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첫째, 반미 봉기가 있을 것이냐? 이런 일은 가끔 정기적으로 있었다. 오바마 재임중의 경우를 말한다면, 오바마의 카리스마는 최소한 4년간 미국을 보호할 것이라고 본다. 개인으로서 오바마는 매우 카리스마적이고, 전세계에서 존경을 받고 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통합된 시스템 아래 있고, 모두가 세계 정부 같은 것을 원하고 있다. 무엇이 이러한 세계 정부가 될 것 인가. 한 나라가 유엔을 대체할 수 있을까? 단기적으로 분명히 그 대답은 “노” 이다. 어떤 나라도 세계를 위한 국제경찰이 되기 위한 경제적 자원과 정치적 욕구를 가지고 있지 않다. 중국

은 경제적 또는 군사적 자원을 갖고 있지 않다. 유럽인들도 그럴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이 일에 흥미가 없으며 잘 사는 것이 으뜸된 관심사다. 그러므로 미국을 대체할 의사가 있는 나라는 없고 국제경찰은 필요하다. 만일 7함대가 사라진다면 누가 그것을 대체할까? 아무도 그것을 자원하지 않을 것이다. 반(半)국제적 정부의 출현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G-8은 사라질 것이다. 이탈리아에서 열릴 G-8은 이러한 종류의 모임으로서는 마지막으로 될 것이며, 앞으로 G-20이 이를 대체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이것은 이런 종류의 세계정부의 확장이며, 미국은 여전히 주도적 목소리를 가질 것이지만 다른 나라들의 입지가 강해져서 그 비중은 줄어들 것이다. 이것이 앞으로 일어날 일이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프랑스 혁명과 같은 극적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질문 5~6개월 전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에도 귀하는 세계경제연구원에서 특강을 한바 있다. 그 당시 당신은 미국 금융시스템의 펀더멘털을 굳게 믿는다고 말했다. 오늘 강연 서두에서 당신은 몇 가지 실수를 했다고 말했다. 그 실수란 당신이 미국 금융위기의 전개에 관해 내놓은 앞서의 예측에 대한 것인가? 또한, 당신은 아직도 미국 금융시스템의 펀더멘털을 믿는가? 둘째 요즘 미국의 언론매체들은 1930년의 금융위기와 지금의 그것은 차이가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며칠 전 미국의 한 텔레비전 네트워크는 오늘날 사람들은 1930년대에 비해 더 부유하게 살고 있다고 보도했다. 두 경기침체의 차이는 무엇인가?

답변 귀하께서 지난번 내가 말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다니 유감이다. 지난번 조찬 강연이 끝난 후 나는 내가 너무 흥분했고, 좀 더 조심했어야 했다는 생각을 했다. 금융위기의 심각성을 과소평가한 것은 나의 실수였다. 전세계의 은행과 금융기관이 부실자산을 안고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었다. 당시 우리는 충분한 정보가 없었다. 부실자산은 미국내의 주요 금융기관에만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것이 한 은행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다. 이것은 조금씩 조금씩 알려진 일이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아직도 그 전모를 모른다. 우리는 그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따라서 위기의 총체적 규모를 모른다. 우리는 지금 파생상품에 근거를 둔 파생상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것은 끝도 없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정보부족 때문에 저지른 나의 실수였다.

우리가 이것으로부터 배워야 할 교훈은 규제가 더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규제는 있었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정보의 부족이었다. 은행이 판매한 부실자산을 약품에 비교해 보자. 사람은 몸이 아플 때 약을 산다. 약을 먹으면 병이 나을 수 있지만 부작용이 있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최소한 그런 정보

가 종이에 인쇄되어 있거나 아니면 의사가 약의 효용과 위험을 설명해 준다. 금융 부문에서도 규제가 해결책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한다. 정보와 정보의 투명성이 해결책이다. 정부는 규제를 추가하는 일이 없이 개입해야 한다. 정부가 규제를 적용할 수도 없을뿐더러 규제가 너무 엄격하면 금융부문의 혁신을 말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해결책은 사전에 우리가 무엇을 구매하는 것인지 알도록 해 주는 정보의 투명성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다른 편다멘털은 모두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쇠신능력, 시장에 쇠신을 도입하는 능력, 전세계로부터 가장 좋은 연구를 끌어 모으는 능력, 우수한 산학협력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경제의 엔진으로서 미국에 필적할 만한 것이 아직은 없다. 중기적으로 미국 산업은 화려한 중흥기를 맞을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미국의 연구소를 방문해 보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게 되며, 누구나 깊은 인상을 받는다. 도처에서 진행되는 바이오 기술이나 나노 기술과 관련된 모든 것은 우선 미국의 시장에서 선을 보일 것이다.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새로운 산업혁명을 목전에 두고 있다. 모든 새로운 제품과 기술이 그곳에 있다. 혁신의 물결이 금융위기로 잠시 중단되었다. 그러나 금융위기가 지나면 새로운 제품과 방법과 기술은 준비를 갖추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적절한 자금조달과 경제적 프로세스의 재가동을 기다리고 있다. 경제의 성장은 주로 혁신 덕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혁신에 필적할 성장의 엔진은 없다. 이것이 내가 미국 경제의 편다멘털이 여전히 OK라고 말하는 이유다. 1930년대와 오늘의 큰 차이를 한 마디로 말하면, 1930년대에는 인구의 2/3가 농업에 종사하였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위기로부터 보호를 받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프랑스의 경우, 위기는 심각했으나 아주 심각한 것은 아니었다. 인구의 50%가 농촌에 살고 있어서 위기의 영향이 덜 심각했던 것이다. 산업화가 더욱 진전된 독일이 더 큰 타격을 받았다. 오늘날에는 농업조차도 영향을 받는다. 농산물을 세계시장에 내놓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늘날은 모두가 위기의 영향을 받는다. 아무런 피난처가 없고 숨을 곳도 없다. 이것이 1930년대와 크게 다른 점이다. 또 다른 점은 모든 나라들이 복지제도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복지제도와 국가의 개입으로 아프리카와 같은 곳을 제외하고는 위기의 영향이 1930년대처럼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지는 않는다. 끝으로, 1930년대와 지금의 아주 큰 차이는 우리가 그 당시 보다 경제에 대하여 더 잘 안다는 점이다. 1930년대에는 많은 큰 실수들이 저질러졌다. 국경을 봉쇄하고, 미국에서는 새로운 기업의 창업을 금지했으며, 전매제도를 강요했었다. 이번엔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았다. 1930년대에는 그런 일이 마땅히 해야 할 일처럼 보였다. 그 이후 경제적 지식이 크게 발전했다. 우리는 그런 정책이 실수였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이번 경기침체를 악화시키지 않는데 도움이 되었고, 경기침체를 악화시키는 요소였던 뉴딜정책과 같은 1930년대의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게 해 주었다.

질문 3~4주 전 루빈(Rubin) 전 미국 재무장관이 이명박 정부 출범 1주년을 기념하는 한국 정부 주최 국제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에 왔었다. 실상 그는 금융위기의 원흉이며, 파생상품을 재포장해 파는 것을 고안해 낸 사람이다. 그는 이런 금융혼란을 일으킨 데 대해 사과를 한 적이 없다. 그는 파생상품을 계속 재포장하여 파는 일이 어떤 합의를 갖는지 깨닫지 못했다고 말했다. 당신도 마찬가지로 그 합의를 깨닫지 못했다고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다. 모든 경제전문가들이 같은 배를 타고 있다.

나의 첫 질문은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것이다. 한국 국회는 여야 모두 워싱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 보고 있다. 한국 국회는 이 협정을 거의 비준할 태세가 되어있으나 야당은 한국이 그것을 먼저 비준해야 할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내 입장은 미국측의 입장이 모호하긴 하지만 우리가 나서서 먼저 협정을 비준하여 미국 쪽 코트로 공을 넘겨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다. 한-EU 자유무역협정은 국제사회에 한국은 무역자유화를 지지하는 나라라는 이미지를 널리 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나는 한국이 먼저 이 협정을 비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질문으로서, 미국 소비자는 한국의 브랜드 네임을 잘 알지 못하므로 한국은 미국시장에서 열심히 로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우리가 이 문제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겠는가? 어떻게 미국 소비자들에게 접근하여 한국 제품을 광고할 수 있겠는가? 물론 현대자동차 같은 기업은 수퍼볼 경기의 비싼 시간대를 사서 자사 제품을 광고한다. 그것도 한 방법이지만, 미국 소비자에게 한국 제품 이미지 전반을 개선하는 일반적인 접근 방법은 무엇인가? 끝으로, 위기가 계속되는 동안 우리는 위기 이후의 시스템을 준비해야 하고, 새로운 건전한 연구 동력을 찾아야 한다고 했는데, 이 점에서 한국은 심각한 문제가 없다고 나는 믿고 있다. 우리는 줄기세포 연구의 선두주자이지만 불행하게도 황우석 박사 스캔들을 겪었다. 그 결과 한국 정부는 줄기세포 연구 예산의 지출을 중단했다. 그런데 몇 주 전 오바마 대통령은 줄기세포 연구에 청신호를 주었다. 이 조치가 영국, 프랑스, 독일을 이 경쟁에 뛰어들게 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나는 우리도 줄기세포 연구를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답변 경제전문가의 책임에 관한 루빈 장관의 말에 대하여 한마디 한다면, 나는 모든 경제전문가는 의사들이 하는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해당하는 선서를 해야 하며, 그 첫째 줄은 “나는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때로 우리는 매우 정교한 제품을 만들어 내며, 이것이 매우 정교하다는 이유로 아주 기뻐한다. 우리는 그것이 중대한 사태를 야기한다는 것을 잊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매우 유용한 모델도 만든다. 우리는 자유무역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델을 가지고 있다. 인플레이션은 나쁘다는 모델도 가지고 있다. 때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다지 조심을 하지 않는다. 경제전문가는 과학자와 같다. 그들은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는지 모르고 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잘 하는 부류가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설명하는데 능하지 않다. 오늘날 이런 전문직은 그들이 취해야 할 행동의 종류에 대하여 진정 열심히 생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 모두가 집단적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상품을 창시했는데 이 상품은 유해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미리 생각하지 못했다. 루빈 장관은 나보다 더 창의적이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더 유해하다고 본다. 직업에는 윤리적 문제가 따르며, 이제부터 이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앞으로 수 년 내에 이런 윤리적 차원의 고려가 직업에 포함될 것이다.

자유무역 문제에 관하여 말한다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서 경제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이나 지식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자유무역이 좋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물론 그것이 일부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도 안다. 자유무역은 세계 전체를 위해서 좋다. 개인적으로 보면 일자리를 파괴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협정에 의해 타격을 받은 사람들을 돕는 것은 당사국 사람들의 책임이다. 그러므로 나는 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며, 이러한 세계적 혜택이 일부 사람들에게 미치는 부정적 결과에 대하여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큰 실수는 부차적인 이유로 자유무역협정을 잇는 것이고, 두 번째 실수는 세계적으로 좋은 것은 모두에게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잇는 것이다. 이것은 큰 문제이다. 왜냐하면 자유무역의 반대자는 늘 그 찬성자 보다 PR에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찬성자는 자유무역이 세계적으로 볼 때 좋다고 말한다. 자유무역의 반대자는 수입 때문에 암소나 점포를 잃게 될 작은 마을의 한 사람을 골라잡는다. 세계적인 혜택과 부정적인 영향 사이에는 비대칭적 불균형이 있다. 한국 정부는 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촛불시위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시위지만 시위자들은 몇 가지 좋은 지적을 했다. 정부가 당시 좀 더 조심을 했더라면 혜택에 대하여 보다 잘 커뮤니케이션을 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자유무역의 반대자들이 다시 촛불시위를 하도록 만드는 똑 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미국 소비자에게 로비를 하기 위해 며칠 전 한국 대통령은 브랜드 한국을 해외에 선양하는 위원회를 만들었다. 이 뛰어난 아이디어의 발상자가 바로 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나는 그것을 추진하는 방식에는 전적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다. 왜냐? 대통령은 10~12명의 “현명한 사람” 들로 위원회를 만들었다. 이 “현명한 사람” 들이 한국을 해외에 선양하는 문제를 정한다. 그들은 태권도가 먼저이고, 김치가 둘째라는 식으로 선양순서를 정한다. 해외에 알려야 할 10가지 좋은 것의 목록이 만들어졌다. 이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다. 좋은 방법은 PR회사와 같은 전문가들에게 가는 것이고 미국인이나 프랑스인에게 “한국에 관하여 무엇을 알고 싶은가?”, “한국

에 관한 당신의 이미지는 무엇인가?” , “한국에 관한 당신의 선입견은 무엇인가?” , “한국에서 무엇을 수입하기를 기대하는가?” 라고 물어보는 것이다. 여러분은 수요자 측면에서 일을 시작해야 한다. 여러분은 자신들이 아니라 상대방으로부터 출발점을 찾아야 한다. 나는 한국을 브랜드로 선양하는 문제를 다룰 위원회가 만들어진 것을 매우 행복하게 생각했다. 그것은 좋은 일이다. 그런데 그 방법에는 다소 놀랐다. 그것은 현대와 삼성이 미국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무시하고 해외에서 팔 최상의 제품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는 방법이 바뀌기를 기대한다. 먼저 미국의 소비자에게 무엇을 기대하는지 묻기를 바라며, 각국의 실정에 맞는 맞춤형 PR 캠페인을 벌이기를 기대한다. 한국이 자유무역협정을 먼저 비준하는 문제에 관하여 말한다면, 그런 쟁점을 두고 주저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야 한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하나의 추세이다. 현재의 부차적 상황 때문에 멈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줄기세포 문제에 관한 질문에 답하겠다. 내가 앞서 말한 바처럼 경제성장은 혁신에서 나온다. 오늘날 나노 기술과 바이오 기술은 이 분야에서 가장 혁신적인 것이라는 데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 한국이 이 분야에서 유리한 것은 분명하다. 물론 사고가 있었지만 모든 나라에서 사고는 늘 난다. 한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이 일을 시작 해야 한다. 연구시설도 있고 연구인력도 있다. 이 사고가 난 후 많은 연구인력이 미국으로 갔다. 한국은 이들을 다시 데려와야 한다.